



# 익숙함을 의심하다... 청년작가들의 질문

도문진원 제주청년작가전 이달 25일부터 온라인 전시

김상균 순차적 서사의 파괴  
강주현 새로운 조각의 실험  
강영훈 작은 목소리의 큰 힘



1 김상균의 '의도적 주의력 결핍 #2'  
2 김상균의 '그려지고 만들어지는 것에 대하여'  
3 강영훈의 '암란의 버스'

몸집을 키우고 내실을 다진 2020 제주청년작가전이 랜선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공시설 운영 중단에 따라 문화회관 전시실 대신 온라인 문을 열기로 했다.

종전과 달리 사전 공모로 선정한 올해의 제주청년작가는 김상균(평면)·강주현(입체, 설치)·강영훈(미디어) 등 3명이다. 이들의 신작은 이달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달 동안 도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eju.go.kr/jejuculture>) 제26회 제주청년작가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김상균 작가는 '의도적 주의력 결핍'을 주제로 자신의 주변이나 타인

이 생각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하나의 대상으로 그려나간다.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연속적인 이미지를 구현하지만 이내 단절된다. 순차적인 서사구조를 허물며 임의로 연결된 시공간의 흐름이 화면에 드러난다.

김상균 작가는 '행위로서의 조각' 연작을 선보인다. 순간의 구조에 고

정되어 온 과거 조각의 개념에 질문을 던지는 작업들이다. 행위의 과정이 만들어내는 움직임과 변화로 생겨나는 여러 형상들을 연구하며 새로운 조각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강영훈(제작) 작가는 청소년노동자, 성소수자 군인,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을 부여하는

(small voice with a big impact)' 작업을 벌였다. 난민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자 '그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거나 외면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암란의 버스' 영상 시리즈 등을 출품한다. 문의 064)710-7633. 전선희기자

## 시각공해 말고 마을의 기록과 재생

제주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뉴딜 일환 세 유형 공모

자칫 시각공해가 될 수 있는 조형물 설치나 벽화에서 벗어나 지역민과 소통하며 진행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가 펼쳐진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이 코로나 위기 극복 문화예술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모하는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작가팀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귀포·제주문화도시센터와 협력으로 추진된다. 여러 기

록매체를 이용해 지역을 아카이빙하는 '지역기록형'(우도, 서귀포시), 자연환경(축산악취) 등을 고려한 마을환경예술프로젝트인 '공동체프로그램형'(금악리), 마을경관을 담은 이정표 설치 등 거리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형'(서귀포시)으로 나뉜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작가 등 참여 인원은 총 41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제주의 역사·문화적 장소성을 살려 도민과 공감할 수 있는 소규모 예술 활동을 돕는 '제주문화자원 기반 공공예술 지원 사업'도 벌인다. 시각, 공연 등 문화예술 전 장르를 지원한다. 두 사업의 접수 기간은 10월 5일까지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한다. 문의 800-9142-3. 전선희기자

## 문화가 쏘다

### 이석중 초대전 '삶-동행'

제주시 노형동 이화오피스텔 2층에 있는 현인갤러리가 '삶-동행' 연작으로 이석중 초대전을 열고 있다.

이 작가는 전라북도미술대전 대상, 전국충남미술대전 대상 등의 경력이 있다. 이번 초대전까지 합치면 개인전만 24회에 이른다. 지난 15일 시작된 초대전에서 이 작가는 유화로 그려낸 '삶-동행' 2020년 신작을 통해 꽃과 나무, 새 등 자연 안의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어우러진 화면을 펼쳐 놓고 있다. 전시는 이달 28일까지 이어진다. 전시장 연락처 747-1500.

### 그룹 연 정기전 '이아·도'

제주 미술 그룹 '연'이 '이아·도(圖)'란 이름을 달고 열아홉 번째 정기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정기전은 나이, 성별, 살아온 환경이 다른 7명의 작가가 의미있는 각자의 장소에 작품을 선보인 뒤 같은 공간에 한데 모여 전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포피아의 섬 '이아도'처럼 그림으로 관객의 마음에 닿으려는 취지를 담았다. 김민재 김지형 신승훈 양정임 오경수 한향선 현대식 작가가 출품한다. 이달 29일까지 거인 의정원. 전시장 연락처 702-3237.

### 마주보기 동화 10주년 전시

'마주보기 동화' 10주년 전시회가 '꿈꾸듯 동화를 보다'를 주제로 마련된다.

이번 전시엔 김해울의 '웁이자랑 웁이자랑', 김혜숙의 '해님은 무슨 색일까', 고하림의 '나는 외계인과 살아요', 손지혜의 '뱀꽃길', 우지영의 '도리의 꿈', 정지란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 등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시설 운영 중단으로 10월 31-11월 5일로 일정을 늦춰 이충섬미술관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치른다.

### 제주아트플랫폼 토론회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달 19일 오후 2시 문예재단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드러내온 단체, 개인 등 8명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800-9151.

## 시(詩)로 읽는 4.3 (76)

### 영어회화

박노해

누나는 못 배워서  
무식한 공순이지만  
영석이 너만은 공부 잘해서  
꼭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하지만 영석이야  
남위에 올라서서  
피눈물 흘리게 하지는 말아라  
네가 영어공부에 열중할 때마다  
누나는 노조에서 배운  
우리나라 역사가 생각난다  
부유층 아들딸들이 유치원서  
부터  
영어회화 교육에다  
외국인 학교 나가고

중학생인 네가 잠꼬대대까지  
영어회화 중얼거리고  
거리 간판이나 상표까지  
교부랑글씨 천치인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도  
영어회화쯤 매끈하게 굴릴 수  
있어야  
세련되고 교양 있는 현대인이  
라는데  
무식한 공순이 누나는  
미국 전자회사 세컨 라인 리더  
누나는  
자꾸만 자꾸만 노조에서 배운  
우리나라 역사가 생각난다

군정시대에 일어났을 뿐더러 미군정의 잘못된 정책에 비롯되었다. 모든 것이 미군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의 미군정 보고서 등의 미국 문서에 입증되고 있다. 4.3 당시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으며, 그들은 요직에 발탁되었다. 1984년 '노동의 새벽'을 펴낸 박노해는 노동자 시인으로 가장 널리 알려졌다. 1993년 '참된 시작'에서는 미국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그는 20세기에 사회주의혁명을 꿈꿨으나, 21세기에는 '사람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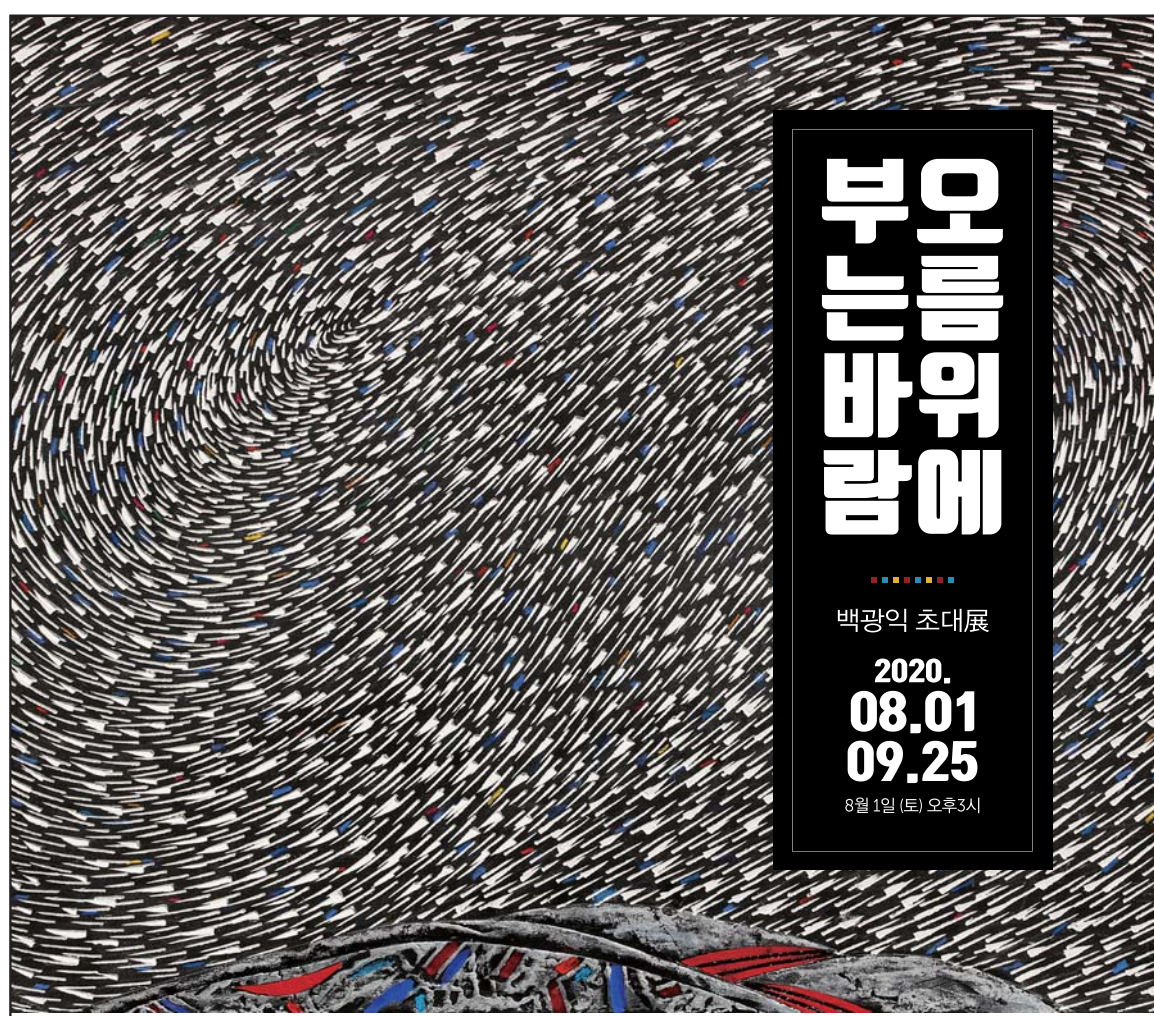
이 희망'인 사회가 오기를 꿈꾸고 있다. '박노해'란 이름은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을 뜻한다. 1978년부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해고·수배·지하조직 등 산전수전 다 겪은 후, 1991년 안기부에 구속되어 무기징역 형을 선고 받았다. 특사로 출옥할 때까지 8년간을 0.75평 독방에서 지냈다. 감옥 안에서 '참된 시는 날카로운 외침이 아니라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등근 소리여야 한다'는 정신적 변화를 겪었다. 4.3의 등근 소리도 존 재할까?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 서귀포예술단과 랜선 타고 음악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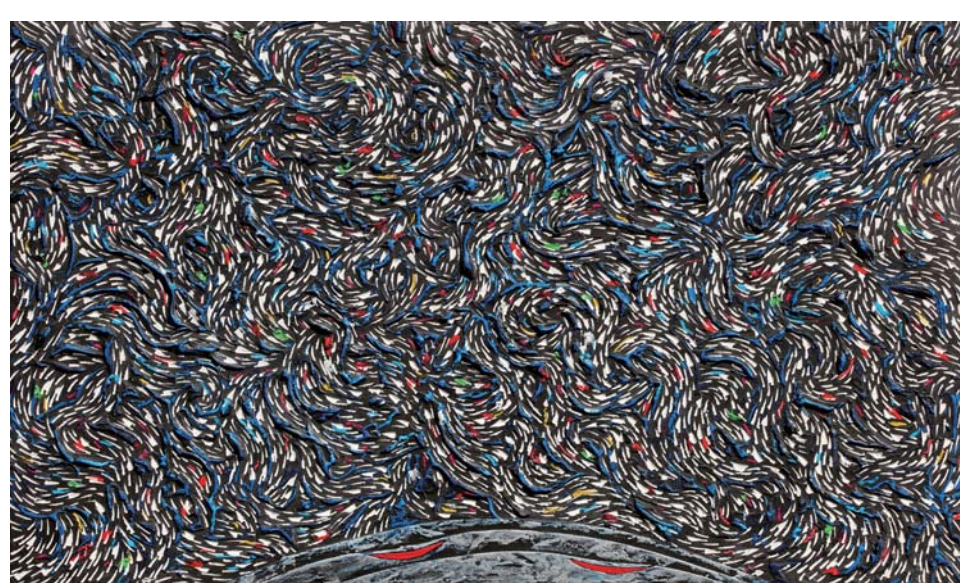
코로나19 여파로 공공 공연장 문이 닫힌 현실에서 제주도립 서귀포예술단원과 랜선 음악여행을 떠나보자. 최근 3년 동안 진행해온 공연 영상 콘텐츠를 서귀포예술단 유튜브 채널(<https://bit.ly/3k4mopp>)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열렸던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콘텐츠다. 83개의 공연을 망라해 매일매일 서귀포예술단원들이 빛어내는 음악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동호가 지휘하는 서귀포관악단은 63곡을 펼친다. 박수현의 '오돌또기 광시곡' 등 제주 창작곡, 현대 관악의 거장인 페레페란의 곡 등 교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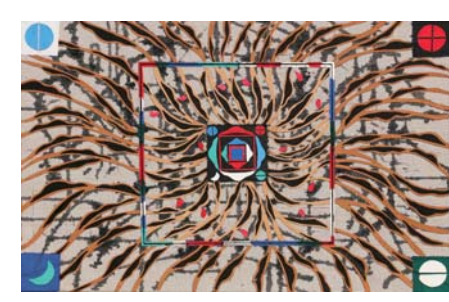
곡, 예수한·우나이 우레조 등 객원 지휘자가 함께했던 전문 관악곡, '위풍당당 행진곡' 등 귀익은 관현악곡을 재편곡한 관악곡,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이 참여한 협연곡, 목관·금관 앙상블 등 단원들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실내악 관성곡 등이다. 최상운이 지휘하는 서귀포합창단은 클래식 명곡으로 꼽히는 모차르트의 '데미사 K.427' 등 26곡을 준비했다.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된 '트롯트의 재발견'과 르네상스 마드리갈, 서귀포의 대표적 명소에서 노래한 영상, 정기연주회에 올려진 현대 무반주 합창곡 등도 들을 수 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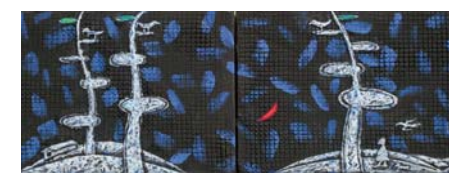
부끄러움의 바람  
백광의 초대展  
2020. 08.01 - 09.25  
8월 1일 (토) 오후 3시



오름위에서 캔버스에 혼합재료 | 41x24cm | 2020



오름위에서 캔버스에 혼합재료 | 61x45cm | 2019



오름위에 부는 바람 캔버스에 혼합재료 | 27x19x2cm | 2020



오름위에서 캔버스에 혼합재료 | 61x42cm | 2020



오름위에 부는 바람 캔버스에 혼합재료 | 61x43cm | 2019



오름위에 부는 바람 캔버스에 혼합재료 | 45x27cm | 2020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문을 연 '갤러리ED'가 '제주, 제주 너머' 3인 초대전을 성황리에 마치고, 두 번째 전시로 백광의 작가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백광의 작가는 제주 토박이로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성장했고 현재 까지도 고향 제주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추상미술 첫 세대의 작가입니다. 오름, 별, 바람 등의 소재를 추상화한 백광의 작가의 그림은 그동안 제주 미술의 정체성을 알려 왔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여러분 깊숙이 잠들어 있는 감성과 영감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리일보는 '갤러리ED'를 통하여 제주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좋은 전시, 보고 싶은 전시를 열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람시간 안내

평일	Open 11:00 Close 18:00	주말 (토, 일)	Open 11:00 Close 17:00	· 휴관 : 매주 월요일 · 문의 : 064-750-2543
----	---------------------------	-----------	---------------------------	--------------------------------------

Gallery ED  
제주시 서사로 154 한리일보 1F